

서울 금강사 '방과후 공부방' 성공 노하우는?

자격 요건 갖추고 '동심' 먼저 읽어라

10월 23일 서울 금강사(주지 분각)에 서는 소박한 잔치가 열렸다. 사찰 바로 옆에 신축한 '보리방과후교실' 개원식이었다. 당연히 주인공은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18명의 아이들. 지난 8월부터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끝나는 오후 2시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던 아이들이다.

지난 2개월 간, 아이들은 맞벌이 등으로 바빠 놀라울 사람이 없는 낯선 공간 '보리방과후교실'을 찾아와 영어공부도 하고 숙제지도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영어도 배우고 미술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미술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데요~"라고 자랑한다. "공부방 부엌에서 간식 만들어서 먹은 적도 있나?"라고 묻자 민주(10·홍은초3)는 "그럼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떡볶이, 팔링수, 가나페..."라고 손을 꼽는다. 옆에서 예술이(8·홍은초1)가 "우와, 언니는 공부방을 오래 다녀서 그동안 많이 만들어 먹었구나"라며 부러워한다.

홍은동 주민 대부분은 생계형 맞벌이를 하고 있어 금강사가 공부방을 마련한 이후로는 지역의 단비가 됐다.

그간 불교계 내부에서도 '사찰 방과후 공부방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돼 왔으나 정작 사찰에서 공부방을 운영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번 금강사 보리방과후교실 개원식이 이목을 끄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장 분각 스님(서울 금강사 주지)은 어째서 공부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1999년 서대문구 홍은동에 금강사가 자리 잡으면서, 스님은 동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천자문교실'을 열었다. '사찰에서 스님이 한자를 가르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2년동안 80여명의 아이들이 금강사를 거쳐갔다.

분각 스님은 어린이포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고심하던 구정에 문익환 경과, 방과후 공부방에 대해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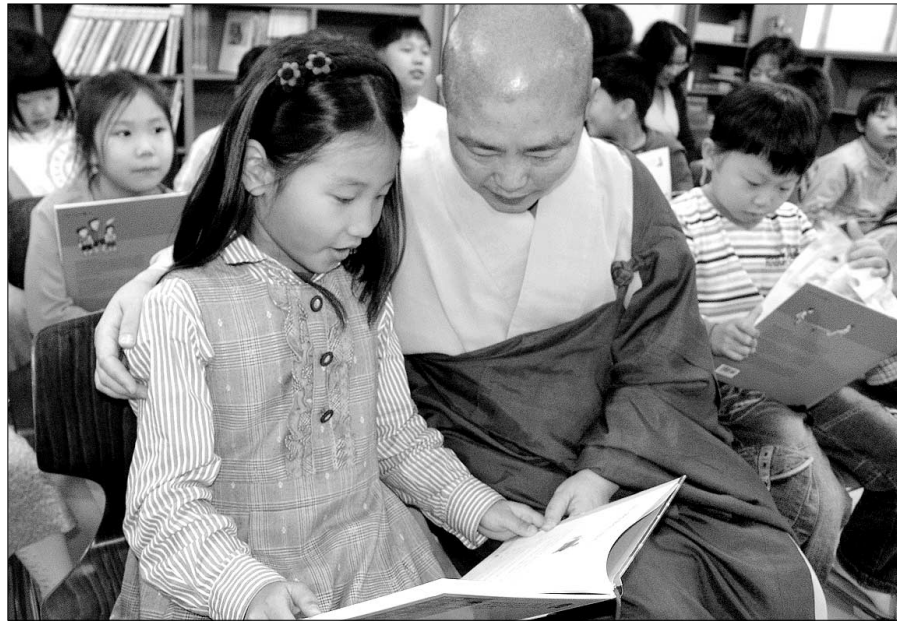
'방과후 공부방'이란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못 받는 아동을 낮 동안 위탁하고 교육시키는 곳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과후 공부방의 보육·교육시설 지원을 강화해왔

다. 따라서 사찰도 자격만 갖추면 공부방을 쉽게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월평균 운영비는 1백15만원, 보조교사비는 30만~1백50만원이다.

하지만 종사자와 시설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아이들이 30명 미만인 시설에는 시설장 1명 아래 교사 2명이 있어야 하며, 시설장은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시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부방을 준비하던 스님은 뜻밖에도 "다른 어린이 관련시설 시설장은 사회복지



서울 금강사가 사찰 방과후 공부방인 '보리방과후교실'을 10월 23일 개원했다. 보리 방과후교실은 요일별로 한글, 풍물,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독서지도와 학습지도를 함께 진행한다.

각종 지원제도·기본시설 잘 살피고

타시설 벤치마킹... 협찬은 '다다익선'

지사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종교시설의 경우 대표자가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스님은 그 때부터 금강사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에 매입해 2월 28일부터 서대문구청의 허가를 얻어 내부설계를 하고 시공에 들어갔다. 완공이 끝난 것은 7월 10일. 지하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나 몇 차례의 시행착오도 겪었다.

구청이 원하는 규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건물 내부를 꾸몄다가 다시 뜯어내고, 인가를 얻는 과정에서 특수보육시설로 분류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도 했다. 스님은 이후에야 사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참고할만한 타사찰 운영사례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이후, 개원식 두 달 전부터 문을 열고

아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해 8월에는 3천만원의 시설보조비도 받고, 정호나이스로부터 협찬 받아 산동네 곳곳을 누비며 아이들을 태울 버스를 마련했다. 현재 공부방은 27명의 아이들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에 있다.

분각 스님은 "다종교계는 종교시설장이 방과후 공부방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정이 개정됐다는 정보를 듣고 7월초에 이미 800여개의 방과후 공부방을 개설, 1주일에 한번씩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다"며 "각 사찰마다 작은 공간만이라도 개방해 방과후 공부방을 만든다면 불자가정 어린이 뿐 아니라 무종교, 타종교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포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글·사진=이은비 기자

■ 분각 스님이 말하는 '방과후 공부방' 운영 Key Point

- ① 무타대고 신청하기에 앞서 지역 내에 다른 '방과후 공부방'이 있는지 알아보다. 타종교시설이 이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② 운영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라. '아이들이 학교 마친 후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시간만 채워주면 된다'는 식으로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막연히 생각한다면 금물이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특רח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실력 있는 교사가 선발돼야 한다. 보리방과후교실의 경우 '미술교육이 알차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늘어났다.
- ③ 사찰문화 프로그램으로 특성화하라. 한문서당이나 다도교실 등 스님이 직접 가르치면서 인성교육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 ④ 지역 구청 공무원 등 관련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라. 관계자들과 충분히 알아야 지역소식도 자주 접할 수 있고 방과후 공부방을 개설하기도 수월하다.



군포 정각사 어린이법회

군포 정각사(주지 정엄) 어린이법회는 지난 2001년 정각사가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서 함께 시작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어린이법회에는 매주 5~60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다. 실제 등록된 아이들은 120여명에 이른다.

일요일 오전이면 부모님이 사찰에 데려가지 않아도 혼자 버스를 타고 법당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 사이에 유기적인 결속력이 이뤄져 아이들이 빠지는 법이 없다.

다. 정각사는 지리적 특성을 포교의 이점으로 재빨리 살려냈다.

신도시인 군포시 중심지에 위치한 정각사는 우선 지리적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열린도량'을 지향했다. 정각사에는 어린이용 도서가 빼곡히 비치돼있고, 컴퓨터와 오락기, 만화책 노래방기계를 갖춘 놀이방도 있다.

또 사찰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어린이법회 운영 프로그램에도 반영했다. 정각사 어린이법회는 첫째주에



매주 50여명씩 어린이들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루는 군포 정각사 어린이법회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한반이 돼 법회를 진행한다.

동생·언니·오빠 함께 신나는 법회

컴퓨터 오락기에 만화책까지...언제나 문 열린 법당 인기

이처럼 정각사 어린이법회의 결속력이 유난히 큰 이유는 독특한 '합반제' 때문이다.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금선 스님은 3~4개월 된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격이 없이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한 끝에, 기존 사찰들처럼 연령·학년별로 어린이반 교실을 나누는 대신 유치부 아이들부터 저학년, 고학년 어린이를 모두 고르게 섞어 한 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연령을 초월한 '합반'이 정각사 어린이법회에는 세 개나 있다.

금선 스님은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진 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화합과 형제애, 우애를 익힐 기회를 주고, 자연스러운 협동심을 계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각사가 짧은 시간 안에 유난히 어린이포교에 성공한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

고정적으로 '합회법회'라 불리는 신행법회를 진행하고 마지막주에 생일잔치 등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둘째주와 셋째주에는 자유로운 야외활동을 통해 법회를 운영한다. '법회는 사찰에서만 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인근 미술관에서 열리는 무료관람회를 보러 가거나 인근의 산으로 소풍을 떠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법회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각사 어린이법회를 지원하는 '자모회'가 이들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때문이다. 약 20명으로 이루어진 자모회 어머니들은 차량지원 등을 통해 법회가 원활히 열릴도록 돕고, 매월 초 어린이법회 회의가 열릴 때 지도법사스님, 지도교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해 법회 프로그램과 식단을 함께 정한다. (031)398-8001

이은비 기자

월간 『불교와 문화』 10월호 발간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에 위안을 주는 편안한 잡지, 월간 『불교와 문화』가 이 가을,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10월호에서는 연속기획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의 세 번째 주제, "병(病)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불교적 관점에서 병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한 색다른 시각으로, 병이 절망보다는 인생을 성숙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망해봅니다. '옥의 티' 코너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불교문화의 설명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불자의 눈으로 감상하는 정열과 예술의 나라 스페인 문화기행과 2006 한(韓)브랜딩 박람회 현장 찾아가 우리 문화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새로운 문화콘텐츠들을 화보로 소개합니다. 특히 현대 어린이들의 심성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일중 스님의 특별기고 '어린이들을 위한 명상법'은 갖가지 경쟁 속에서 명드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가을 속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6 10

소설가 조경란의 내 기억 속의 절집 | 정철한 평화와 소박함  
현장 속으로 | 2006 한(韓)브랜딩 박람회  
특별기고 | 어린이들을 위한 명상법  
연속기획 |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 ● 병(病)이란 무엇인가  
독자들 세상 | 독자 기자의 첫집 탐방 - 청천합니다  
종범 스님의 불교란 무엇인가 ● 밀교의 신앙과 의례  
서평 스님의 자상법문 "함께 풀어나가고, 연결하며, 소통하고 흘러가는 존재가 되십시오"  
응용불교 |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열린불교 열린경쟁 ● 불광사 리모트  
신행 365일 |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전국 순회법회 이모저모  
역물시대 수행열전 ● 신의성이 만난 고승 성정(性淨) 스님  
집중인터뷰 4 | 음악의 아름다움을 일상에 나누는 바이올리니스트 김경은  
2006 시로 지은 절 | 박경애 작 '가을 저녁속'  
불교문화재 설명 바로잡기 | 국립중앙박물관 "지묘보살과 무리"를 "지묘사당"으로  
작업실 풍경 | 전각가 고일 창평재  
불자가 떠난 스마틴 문화기행 (상) |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를 만나다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 Himalaya  
2006 테라기행 |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살짜는 가을'을 대비한 다이어트 영양식 2  
건강 에세이 | 감기 - 열심히 호흡하고 휴식하자  
좋은 책 읽기 | 문화단신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티어여행 ● 서울의 능묘(陵墓)  
상사 성자순에 안내 | 향일암 · 선영사 · 송광사

www.buddhistculture.co.kr

월간 『불교와 문화』 1권 3,000원, 1년 구독료 30,000원(12권) 구독 문의: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듯한 일침!!!

"빙의 이전 제대로 알아!"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주세요.

-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 여성상위시대와 빙의는 왜 오는가?
-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